

#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 만전

전북자치도가 오는 10월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돌입했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남(지난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인태 전주부시장, 대회 개최장소인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치도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자치도 기본계획과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점검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전주시, 관계부서, 출연기관 등과 총 20여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기업 전시관 구축 △도내 참여기업 발굴 △자체 프로그램 구성 △문화공연프로그램 및 투어프로그램 △자원봉사자와 교통 20여차례의 의뢰 △환경과 위생관리 등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왔다.

먼저, 기업 전시관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설치되며, 300부스 규모의 기업 전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임시 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시 건축물은 이날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기업 전시 공간은 전기, 통신, 공조 등을 설비해 실내 전시장과 다름없는 공간으로 구성해 참가기업과 관람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해외 동포청에서 발굴한 해외 바이어와 도내 참여기업을 연계하고, 향후 참여하는 전국 각 지자체의 우수기업을 발굴해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는 대회 기간 동안(10월 22일~24일) 지니포럼, 일자리페스티벌, 창업대전, 전주국제드론산악박람회 등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연계해 대회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인태 전주부시장, 대회 개최장소인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및 관계자들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자치도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시간을 가졌다.

## 전북자치도, 추진위 1차회의 개최...준비상황 점검 행사장 구성·비즈니스활성화·관광·숙박 등 검토

이와 함께 새만금 투어, 당일 및 1박 2일 선택형 전북 관광 프로그램,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구성해 대회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을 비롯한 전주시 일원에서 다양한 공연프로그램도 열린다. 도립국악원과 문화관광재단,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퓨전국악 공연, B-Box 공연, 노상놀이 통합퍼레이드 등이 한옥마을과 대외장인 전북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 밖에도 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대회 전반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셔틀버스(주요역-터미널, 호텔-행사장) 및 순환버스(행사장 내부)를 운행해 참가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대회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이 설치되며, 의료지원본부 설치·운영에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방역과 위생·환경 체계를 구축해 각종 상황에 대한 예방조치와 실시간 대응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도내 숙박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며, 향후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호텔 뿐만 아니라 한옥 스테이 등 다양한 숙박시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참가자들이 단 하나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고 성과를 거두는 대회 개최를 통해 전북의 역량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인태 전주부시장은 "전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전주로 초대하는 만큼, 전주의 매력에 충분히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한인 경제인들과 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학생들에게도 전세계의 한인 경제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대회가 전북대에서 열리는 만큼 적극 협력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열리게 되며,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 4,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청년 기업가의 해외 진출 등 세계한민족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행사로 치러지게 된다.

/김재훈 기자

##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전북특별자치도,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30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모기물림 주의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 대상자에게는 접종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이 지난해(3월 23일)에 비해 7일 가량 늦어진 것은 남부지역(부산, 경남, 전남, 제주)의 3월 평균기온이 지난해 대비 낮아져 모기 활동이 다소 늦어진 것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하며, 우리 도는 2013년 2명의 환자 발생 이후로 2023년까지 환자 발생 보고는 없다.

도는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2011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에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중 △위험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했다. /김재훈 기자

## 도, 올해 다각적 징수활동 예고

체납액 5천만원 이상 감치 신청, 3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등

전북자치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다각적인 지방세 징수를 예고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는 2024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체납징수 계획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기조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감치신청 △3,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도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요금소 및 주요 거점에서 차량 관련 자동차세·제3차무자 정보 등록 등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금융자산 등 압류를 위한 제3차무자 정보 및 압류 방법 등을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체납징수 담당자가 언제든지 압류 가능한 채권의 종류, 압류 방법·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는 명백한 압류금지재산의 압류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압류

를 즉시 해제하고, 소멸시효 중단에서 제외 조치해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군수는 납세자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정리보유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도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민서비스를 통한 '지방세 체납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모바일 전자고지로 체납사실을 발송할 예정이다.

체납징수 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징수 자체 교육이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이용 활성화, 제3차무자 정보 등록 등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금융자산 등 압류를 위한 제3차무자 정보 및 압류 방법 등을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체납징수 담당자가 언제든지 압류 가능한 채권의 종류, 압류 방법·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군의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과 효율적 징수사례 등을 발굴한다. 발표대회 최우수 시·군은 행안부 발표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 다양한 주체와 복지사각지대 대응 나선다

행안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 서비스 개발' 공모에 전주·남원·장수 선정

전북자치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지역 내 복지지원 연계 강화 부문)' 공모에 전주, 남원, 장수 3개 시군이 최종 선

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 함께 주민주도형 사회안전관개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군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식사'와 '요리'를 매개로 주민 복지자원을 공유하는 공동부엌 '두루마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나누는 놀이터' 및 고립가구의 외부활동

을 촉진하는 '커피한잔할래요?' 등 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우체국과 협약을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에 소규모 생필품 등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가구를 조기 발견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장수군에서 선정된 '찾아가는 복지 등기우편 사업'은 위기의심가구에 대

한 복지등기 우편 발송과 주기적인 안부 확인 및 물품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박장석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복지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에 외부활동을 독려하는 등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정책으로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전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